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2
NOV 20 2019

발간년월 2019년 11월 20일 (통권 제11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카자흐스탄, 이달부터 '비즈니스 로드맵 2025' 착수
- 지난해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액, 사상 최대치 기록
- 단일 운송장으로 중국-유럽 간 복합운송 최초 실행
-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카스피 해를 경유 유럽-아시아 광섬유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합의
- 러시아 로즈아툼-독일 함부르크항, 북극항로 활성화 필요성 논의

주요 통계

-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주요 동향



카자흐스탄, 이달부터 ‘비즈니스 로드맵 2025’ 착수

■ 카자흐스탄의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총리는 2019년 11월부터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5’를 공식적으로 채택해 착수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전달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에서 비즈니스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지하고, 비즈니스 로드맵 전략을 속히 이행하기로 결정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 분야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기조는 카심 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까지 수용했고, 이미 지난 5월에 국가 투자자 협의회 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함
- 이에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국가 경제 점유율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안함
- 아울러 2050년까지는 중소기업의 입지를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의 과정 사업으로 ‘비즈니스 로드맵 2025’를 착수하게 된 것임

■ 카자흐스탄은 지난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수행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보여주었음

-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카자흐스탄 내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약 88,000명이 정부 지원 하에 직업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실제로 카자흐스탄 GDP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5년 24.9%에서 2018년 28.4%로 증가한 양상을 보임
- 세계은행 사업용이성지수(Doing Business Rate)에서는 기존 28위에서 25위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고, 중소기업 생산량 규모는 13.3조 텡게에서 24.3조 텡게로 증가함
- 비즈니스 로드맵 수행의 성과로 새로운 일자리는 총 94,000여개가 창출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비즈니스 로드맵 2025’에서는 2020년 때 보다 1.5배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함

- 아스카르 마민 총리는 국가경제부에 공식적으로 이달 말까지 ‘비즈니스 로드맵 2025’ 프로그램에 착수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는 이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전함
-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경제상공회의소 아타메켄(Atameken Chamber) 및 국영 중소기업 지원 펀드인 다무 기업개발펀드(DAMU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und)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요청함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https://www.inform.kz/kz/> (2019.11.16. 검색)
- b)<https://primeminister.kz/kz/> (2019.11.16. 검색)
- c)<https://inbusiness.kz/kz/> (2019.11.16. 검색)

지난해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액, 사상 최대치 기록

■ 2018년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역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4년간 러시아의 대 아프리카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교역액은 200억 달러에 달함
- 러시아 수출국(REC)의 안드레이 슬레프네프(Andrei Slepnev) 사무국장은 2022년까지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러시아와 아프리카는 10월 23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동 정상회담에는 43개의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훌륭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은 이집트 내 러시아 산업단지(RPZ)를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수출국(REC) 슬레프네프는 2018년 러시아-아프리카 간 약 200억의 교역액 중 비광물, 비에너지 제품 교역액이 143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교역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2026년 완공 예정인 이집트 내 러시아 산업단지(RPZ)에서 나온 것임
- RPZ 산업단지는 이집트 동부 수에즈 운하 유역에 건설 중이며 러시아 연방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1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2019년 3월 기준 14개의 러시아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비 에너지 기업(운송, 통신업)임
- 이집트 내 RPZ 산업단지가 건설되면 러시아 아프리카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2026년 완공 예정인 이집트 내 러시아산업지대



이호건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leehkun2010@gmail.com)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rossiyskie_eksportery_ne_speshat_-zaselyat_-bereg_a_suetskogo_kanala.html (2019년 10월 28일 검색)
- b)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rossiyskiy_nesyrevoy_eksport_-zaydet_-v_afrik_u_so_storony_suetskogo_kanala.html (2019년 10월 28일 검색)
- c)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dinamika_tovarooborota_s_gviney_u_rossii_o_tlichnaya_-no_obemy_vse_eshche_sliskom_maly.html (2019년 10월 28일 검색)
- d)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1893> (2019년 10월 30일 검색)
- e) <http://euroetpao.ru/press/news/768/> (2019년 10월 30일 검색)

단일 운송장으로 중국-유럽 간 복합운송 최초 실행

■ 올해 11월 단일 운송장으로 중국-유럽간 복합운송이 최초로 실행됨

- 이번 운송은 정기적인 복합운송을 위한 시험운행으로 11월 2일 중국 시안에서 출발함
- 중국발 화물량은 약 84TEU로 40ft 컨테이너 총 42개에 소비재, 자동차 부품, 컴퓨터 장비 등을 적재해 운송함
- 중국발 컨테이너 열차는 약 8.5일만에 러시아 카리니그라드주 발티스크항 도착해 항구에서 피더선박으로 화물을 적재, 해송으로 독일 튀겐섬의 대형 철도·항만 복합단지인 무크란항으로 운송됨
- 무크란항에 도착한 화물은 다시 철도 화차로 옮겨져 최종 목적이인 함부르크로 운송됨
- 11월 11일 독일발 컨테이너 열차가 출발해 11월 13일 발티스크에 도착, 중국으로 운송됨

■ 본 운송 프로젝트는 UTLC(United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y - Eurasian Rail Alliance)사와 독일 무크란항의 협력으로 시행됨

- UTLC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협력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Kazakhstan Temir Zholy', 'Belarusian Railway', 러시아철도공사가 각각 약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a)}

■ 러시아철도공사에 따르면 총 운송기간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함

- 처음으로 도입된 단일 운송장은 법·제도뿐만 아니라 뉴실크로드의 철도, 해양 두 가지 운송모드에서 유효하게 사용됨
- 또한 단일 운송장은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유럽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본 경로에서 화물운송을 할 경우 운송장 재발행을 할 필요가 없어짐
- 러시아철도공사는 단일 운송장을 통한 복합운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국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참고자료

a) http://logirus.ru/news/transport/edinaya_nakladnaya_gruzy_i_po_zheleznoy_doroge_i_po_moryu_provela_vperve.html, <https://chinalogist.ru/news/pervyy-poezd-rzhd-i-otlk-era-p-o-marshrutu-sian-kaliningrad-gamburg-dostig-baltiyska-17411>(검색일: 2019년 11월 18일)

a) OTLK, <https://www.utlc.com/>(검색일: 2019년 11월 18일)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카스피해 경유 유럽-아시아 광섬유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합의

■ 알리 아사도프(Əli Əsədov) 아제르바이잔 총리와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악타우(Aktau) 시에서 개최된 케이블 건설 사업 결정에 관한 축하 행사에 참여했음

- ‘트랜스카스피안 광섬유케이블(TransCaspian Fiber Optic)’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카스피해 해저 케이블 설치를 통해 유럽-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총 길이는 380~400km로 예정되어 있으며, 망 구축 사업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카자흐스탄 측의 트랜스텔레콤(Transtelecom), 카즈트랜스콤(KazTransCom), 아제르바이잔의 아제르텔레콤(AzerTelecom)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 광섬유 케이블 건설 완료 및 서비스 공급은 2021년 이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은 초당 4~6테라바이트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그림 2.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카스피해 경유 광섬유케이블 사업 합의



■ 또한 양국 총리는 회동에서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음

- 마민 카자흐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카자흐 관계가 독립 이후 우호적인 협력관계였으며, 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 대통령과 일함 알리에프(ilham Ə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모두 전임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와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Əliyev) 양국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잘 계승하여 우호협력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아제르바이잔 대표단에 덕담을 건넸음
- 또한 마민 총리는 “트랜스카스피안 광섬유 케이블은 안전한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한층 더 높은 발전 단계로 이끌고, 아시아-유럽 대륙을 잇는 세계의 선도적인 인터넷 공급망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사업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또한 아사도프 총리와 마민 총리는 당면한 인터넷 통신망 설치 사업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간 무역거래, 투자, 물류교통, 농업, 항공우주 및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및 그 전망에 대해 논의했음

조용성 현지리porter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a) <https://denizxeber.az/2019/11/19/az%99rbaycan-v%99-qazaxistan-avropa-v%99-asiya-arasinda-r%99q%99msal-telekommunikasiya-d%99hlizi-yaradir/>
(2019.11.19.검색)

러시아 로즈아톰·독일 함부르크항, 북극항로 활성화 필요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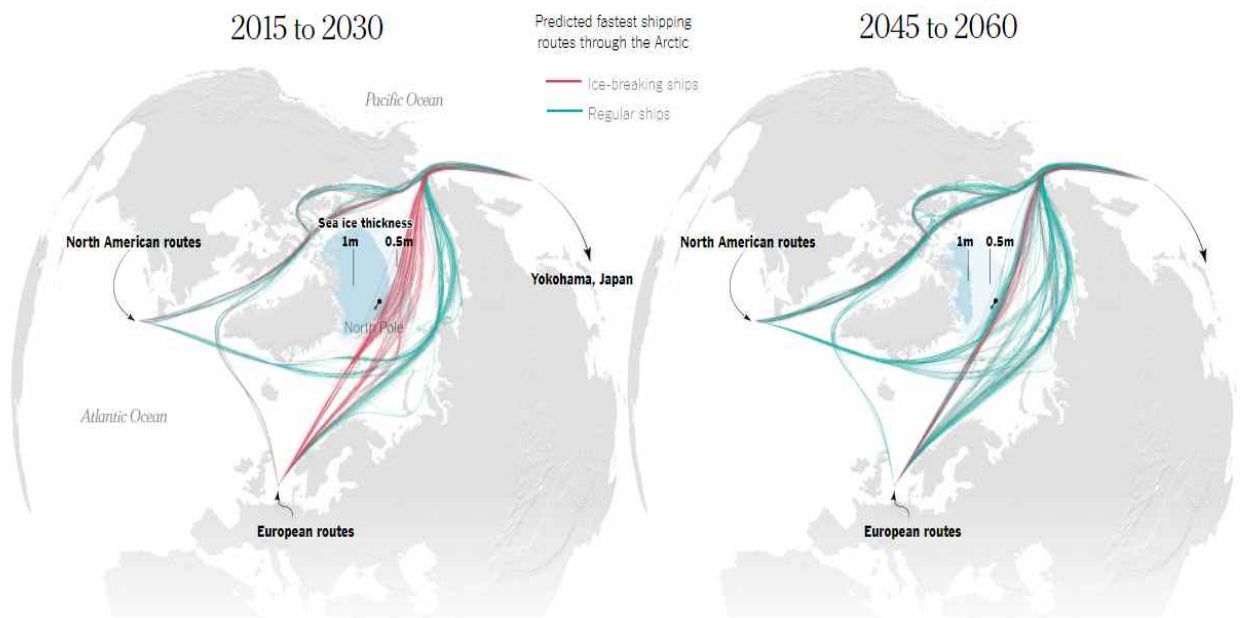
■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로즈아톰(Rosatom)과 함부르크항은 유럽-아시아 구간에 대한 북극항로(NSR)의 경쟁력 및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Mikhail Belkin 로즈아톰 정책담당부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환경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주요 해운회사들이 북극항로 운항을 꺼려했으나, 2018년 기준 총 27척의 선박이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등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Ingo Egloff 함부르크항 마케팅 공동 대표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함부르크항이 향후 북극항로의 허브항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실제로 2019년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8년 대비 40% 증가한 2천 9백만 톤임

- Nikolay Monko 러시아 북극항로관리국장(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북극항로 물동량이 2천 3백만 톤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2천 9백만 톤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림 3. 북극항로 활성화 예측(2060년)



출처: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5/03/science/earth/arctic-shipping.html>(검색일: 2019년 9월 24일)

(051-797-4916, jjsungjo@kmi.re.kr)

참고자료

- a) <https://iumi.com/news/news/russia-pushes-for-expansion-of-ports-and-shipping-along-the-northern-sea-route>(검색일: 2019년 11월 20일)
- b) <https://safety4sea.com/nsr-shipping-increases-by-40-in-2019/>(검색일: 2019년 11월 20일)



주요 통계



표 1.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09 (-0.4%)	6.24 (-0.1%)	17.33	-0.3%
북극해	2.92 (+0.2%)	5.87 (-3.2%)	8.78	-1.9%
발트해	9.1 (-0.4%)	12.01 (+0.7%)	21.01	+0.2%
아조프-흑해	8.9 (+0.4%)	13.78 (+0.1%)	22.68	+0.2%
카스피해	0.19 (+2.3%)	0.51 (+11.4%)	0.7	+3.3%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광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금속 및 금속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계류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타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228	298.5	8	157.3	228	298.5	8	157.3	-	-	-	-
냉동어	104,636	1,607,556.0	2,475	41,564.5	104,551	1,606,927.4	2,475	41,564.5	85	628.6	-	-
연어류	19,884	237,299.0	-	-	19,799	237,064.0	-	-	85	235.0	-	-
넙치	670	21,080.5	-	-	670	21,080.5	-	-	-	-	-	-
가자미	819	13,009.3	-	-	819	13,009.3	-	-	-	-	-	-
가자미류	2,233	28,040.5	-	-	2,233	28,040.5	-	-	-	-	-	-
청어	14,264	66,102.4	-	-	14,264	65,727.7	-	-	452	374.7	-	-
대구	3,157	149,451.2	-	-	3,157	149,451.2	-	-	-	-	-	-
명태	50,760	807,088.8	-	-	50,760	807,088.8	-	-	-	-	-	-
농어	42	1,587.4	-	-	42	1,587.4	-	-	-	-	-	-
간, 곤이 (어란)	1,582	207,262.7	-	-	1,582	207,262.7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23	12,147.8	-	-	623	12,147.8	-	-	-	-	-	-
생선필렛, 어육	3,893	150,096.7	55	2,458.6	3,893	150,096.7	55	2,458.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	1,212.4	84	4,559.9	10	1,212.4	84	4,559.9	-	-	-	-

갑각류	4,845	735,693. 2	0	0	4,845	735,693. 2	0	0	-	-	-	-
계류	4,015	665,876. 4	-	-	4,015	665,876. 4	-	-	-	-	-	-
조개류	4,664	57,210.4	-	-	4,664	57,210.4	-	-	-	-	-	-
가리비류	31	9,223.3	-	-	31	9,223.3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4,247	25,136.0	62	2,194.2	4,247	25,136.0	62	2,194.2	-	-	-	-
수산무척추동물	970	25,345.9	-	-	970	25,315.5	-	-	1	30.4	-	-
해삼류	486	6,190.1	-	-	486	6,159.7	-	-	1	30.4	-	-
성게류	294	18,698.1	-	-	294	18,698.1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